내 손 안에 하나님 나라, 진리로 세계를 열어주는

GPM
GOSPEL & PRAYER MEDIA
왕하 2:21

복음기도신문은 복음과 기도의 증인들의 믿음의 고백과 열방의 뉴스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해석해 성도를 일깨우고 열방의 중보기도자로 세우기 위해 격주로 발행되는 신문입니다.

복음기도신문

한국어판 www.gnpnews.org
영어판 english.gnpnews.org
일어판 japan.gnpnews.org
중어판 china.gnpnews.org

2010. 10. 3 창간 | Gospel Prayer Newspaper | 2023. 5. 14 ~ 2023. 6. 3 제282호

대마 합법화 국가들, 청소년 중독 늘고 암시장 번성

대마의 음성적 거래 관리를 위해 대마를 합법화한 나라들에서 오히려 청소년 중독이 늘고 암시장이 번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조선일보가 최근 전했다.

독일 정부는 대마 암시장을 몰아내기 위해 지난달 12일 "성인들은 25g까지는 대마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비영리 사교 클럽(social club)을 통해 마약을 구매해, 술이나 담배처럼 즐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캐나다 정부도 "불법 업체 제품에는 중금속이나 제초제 등 몸에 해로운 물질이 포함돼 있을 수 있고, THC(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대마에 포함된 향정신성 물질)의 농도가 지나치게 높아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에 나섰다. 그러나 대마 제품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합법적으로 판매되는 대마는 '쓰레기'"라며 외면하고 있다. 이에 캐나다의 대마 판매 업체 캐노피 그로스의 데이비드 클라인 최고경영자(CEO)는 합법적 대마는 가격도 비싸고 판매 매장도 부족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접근성도 좋은 불법 제품이 압도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대마를 합법화해도 음성적인 거래가 완전히 뿌리뽑히지 않고 있다. 2021년 캐나다에서 비의료적인 목적으로 대마를 투약한 사람 중 거의 절반 가까이가 미등록·불법 업자를 통해서 대마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는 "2021년 4분기에는 대마 구입 관련 가계 지출의 40%가 미등록 업체를 통한 것이었다."고 했다. 지난 2월에도 캐나다 정부는 "등록 업체를 통한 합법적인 대마만 구입해야 한다."는 보도자료를 냈으며, 2022년 2월 우루과이에서는 대마 투약자 15만 8000명 중 6만 9000명만 합법적인 업체를 통해 대마초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국가들은 강한 규제와 단속이 불법 시장을 키울 것을 우려, 대마 합법화를 추진했지만, 대마 불법 시장 근절은커녕 청소년 등이 대마에 쉽게 노출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UNODC는 2022년 세계 마약 보고서에서 "대마 합법화로 매일매일 일상에서 대마를 투약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며 "대마 투약자가 정신적인 문제를 겪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도 함께 늘어나는 추세"라고 했다.

이와 더불어 대마 합법화로 청년층 투약자의 정신질환 발생률이 높아지고, 자살률도 함께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UNODC는 "2002년에서 2018년 사이 미국 내에서는 청년층(18~34세)의 자살률이 높아졌는데, 대마를 합법화한 주에서 자살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고 했다. 콜로라도주의 경우 2006년부터 2018년 사이 대마 투약과 연관성이 있는 자살의 비율이 3배 늘었다. 청소년들이 쉽게 대마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GNPNEWS]

* 기사 전문은 QR코드 검색

사람 꽃피다

김종홍 선교사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고려인 난민의 피난처 만들다

안산동산교회 9층의 한 사무실에 들어서자 한국어 수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난민이 된 고려인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었다. 이들은 모두 김종홍 선교사가 한국으로 인도한 고려인이다. 처음엔 피난민이 된 교회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지금은 난민이 된 수많은 고려인을 돕기 위해 발이 부르트도록 뛰고 있었다. 그의 전화기는 수시로 울렸다. 고려인 난민들은 문제가 생기면 그를 찾기 때문이다. 고려인 난민의 피난처가 된 김 선교사의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 4면에 계속

마음의 눈을 밝히사 (66)

하나님 나라의 열매는 기도로 이뤄진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요한복음 15:16)

십자가를 통해 주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분의 가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포도나무 가지가 반드시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살 수 있듯, 우리도 하나님과 연합된 생명이 되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택하여 세우셨습니다. 우리 인생도, 비전도 내 자신의 것이 아니며 우리 삶에 관한 계획도 주님이 다 세우셨습니다. 그러니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인생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아무 성과도 없이 무의미하게 죽으면 어떡하나 하는 미래의 열매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열매가 항상 있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만 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계획하신 열매를 드러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다 해버리시면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받는 우리에게 의와 기쁨이 되게 하시려고 남겨놓으신 몫이 기도입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로 되는데 딱 한 가지, 우리에게 참여할 기회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과 기도입니다. 기도해야만 이루어지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단 하나, 주님이 우리와 사랑과 기쁨의 교제를 나누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네가 믿었기 때문에 기도했지? 네가 기도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다!"라고 하시며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매는 다 준비되어 있는데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이 응답하십니다. [GNPNEWS]

일러스트=김경선

복음을 영화롭게 하라 (김용의.규장.2017)에서 발췌

복음의 소리
316전화

복음이 먼지 궁금하신가요?

믿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연락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해답이 있습니다

1670-3160

운영시간 : 10시~22시
상담시간 : 40분

장난 전화는 삼가주세요

포토뉴스

민주콩고, 분쟁의 고통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기를

▲ 콩고민주공화국 이주위섬 아이들. 제공: 윤성운 선교사

콩고민주공화국(이하 민주콩고) 이주위섬의 부가룰라교회에서 만난 아이들이다. 카메라 앵글 안에 어떻게든 담겨보려고 몸을 숙여 포즈를 취한다. 이날은 고마에서 찾아간 기도자들이 목회자 17명과 함께 말씀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민주콩고는 1994년 르완다 학살의 여파로 폭력 사태가 끊이지 않고 있다. 당시 후투족이 소수파 투치족과 온건 후투족 등 80만 명을 살해했다. 유엔아동기금에 따르면 지금 동부 지역에서 정부군과 반군의 폭력 사태로 75만 명의 어린이들이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 2021년 5월에는 노스키부주와 이투리주에 비상사태가 선포됐고, 현재까지 계엄령이 유지되고 있다. 올해 1월 이후 분쟁으로 문을 닫은 학교가 최소 2100개에 달한다.

그러나 이 땅에서 24시간 기도의 향연이 이어졌다. 민주콩고 고마시의 헤브론고마공동체에서 열린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느헤미야52기도' 모임. 글을 잘 못 읽어도, 때론 졸면서, 예배 진행이 서툴러도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했다. 분쟁과 고통과 슬픔으로 얼룩진 민주콩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요 13:34) [GNPNEWS]

생활동반자법 통과되면 사생아 급증, 가족해체 야기 우려… 전문가들, 법안 반대운동

최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생활동반자법이 제정될 경우, 다양한 문제를 유발시키며 한국 사회의 가족해체 등을 가져올 것이라고 성윤리 전문가들과 시민들이 구체적인 법안 반대 운동을 펼치고 있다.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과 복음법률가회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 4일 '비혼 동거와 동성결합을 합법화하려는 생활동반자법안을 철회하라.'는 성명을 내고, 이 법안은 사회보장 혜택을 취하면서도 결혼을 회피하려는 성인의 욕구를 앞세운 대중여론에 영합한 포퓰리즘적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 법과 비슷한 시민연대계약(PACS)법안이라는 이름으로 제도를 시행 중인 프랑스에서조차 비판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러한 악법을 발의한 의원이 제정신인지 의문스럽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제도를 도입한 서구 사회는 이미 혼인율 급감, 출생자 중 혼외 출산율 급증(프랑스의 출생아 중 혼외 출산 비율은 63.5%)이라는 가족해체 현상을 겪고 있다. 또 동거 관계는 평균 18개월 정도로 짧아, 혼외자들은 혼인 중 출생자보다 4배나 많은 육체적·정신적 학대, 우울증, 학교 중퇴를 경험할 가능성이 4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법안에 따른 배우자에게 허용되는 주택청약, 건강보험료 지급의무 면제 등 사회복지 혜택을 동거 파트너에게 제공하는 혜택을 누리면서도 정식 결혼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을 양산할 수 있다.

또 성명서는 생활동반자 제도를 도입한 국가 중 동성커플을 위해 대리모나 정자은행을 합법화하기도 하고, 레즈비언 커플 중 출산하지 않은 파트너에게도 친권을 인정하며, 이 제도 도입 후 수년 내에 동성혼을 합법화하는 수준을 거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용 의원이 발의한 법안도 누구나 원하는 대로 가족을 구성할 수 있다고 규정, 동성 간 결합을 비롯, 궁극적으로 동성혼 합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이러한 커플은 생활동반자관계등록부에 등록이 되는데, 남자 며느리·여자 사위로 불러야 하는 해괴한 가족이 등장할 수 있어 기가 막힐 뿐이라고 밝혔다.

한편, 진평연 집행위원장 길원평 교수(한동대 석좌교수)는 생활동반자법으로 동성커플이 가족으로 인정될 경우, 다음세대에 치명적인 오류를 가져오고, 이런 커플이 동거계약 해지만으로 손쉽게 헤어져 자녀 및 입양아의 복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국회 입법 예고 사이트에서 반대의사를 표명해 줄 것을 요청했다. [GNPNEWS]

* 기사 전문은 QR코드 검색

오늘의 열방 다이제스트

긴급한 열방의 상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열방의 교회, 다음세대, 창궐하는 죄, 이주민 문제, 영적 전쟁 등의 관점에서 전 세계 언론과 통신원들을 통해 모아진 열방의 소식을 요약, 정리해서 제공합니다. 〈편집자〉

세르비아, 촉법소년 연령 14→12세 하향 추진

세르비아 법무부가 13세 소년의 총기 난사 사건을 계기로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기존의 14세에서 12세로 낮추는 형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지난 5일 보도했다. 전날 세르비아 수도 베오그라드의 블라디슬라브 리브니카르 초등학교에서 학생 코스타 케츠마노비츠(13)가 총기를 난사해 학생 8명과 경비원 1명이 사망했다.

나이에 상관없이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탄의 종노릇 하는 것이 우리의 실상임을 고백합니다. 세르비아의 다음세대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듣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고 번성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국제사회, 에티오피아 티그라이주 식량 원조 중단

에티오피아 티그라이주에서 유엔 세계식량계획(WFP)과 미국 국제개발처(USAID)가 식량 원조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연합뉴스가 지난 4일 보도했다. USAID의 서맨사 파워 처장과 WFP는 티그라이주 주민들을 위해 지원된 식량 원조가 유용돼 현지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을 적발했다며, 원조를 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전달이 보장되기 전까지 배급을 재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식량 원조를 이용해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자들을 꾸짖으시고, 양식이 필요한 자들에게 잘 전달되게 하셔서, 양식을 구하는 자들에게 육신의 양식뿐 아니라 영혼의 양식도 허락해주소서.

서울시, 퀴어행사 개최 불허

서울시가 서울광장에서 매년 열린 퀴어행사 사용을 불허했다고 국내 언론들이 지난 4일 보도했다.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조직위)는 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이날 오전 갑작스럽게 열린 서울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에서 서울퀴어퍼레이드의 서울광장 사용을 불허했다."고 밝혔다. 당초 조직위가 퀴어행사를 개최하기로 한 오는 7월 1일에는 기독교 단체가 주최하는 '청소년 청년 회복콘서트'가 열릴 예정이다.

끊임없이 음란성이 지적된 퀴어행사를 서울에서 막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서울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음란한 행사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드려지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GNPNEWS]

느헤미야52기도 참여교회 및 단체

2023년 5월 15일 ~ 2023년 6월 3일

5월 15일 ~ 5월 20일 ▶전남 통영 / 두미교회(이**)010-4734-8567, **5.15~19(11~17시)** ▶경기 군포 / 예수생명교회(권**)010-2735-4869, **5.16(10~12시)** ▶경기 수원 / 주님의교회(이**)010-5006-5529, **5.17(11~15시)** ▶경기 부천 / 어울림교회(박**)010-2664-6936, **5.17~18(20~20시)** ▶경기 파주 / 갈릴리교회(이**)010-3869-3417, **5.18(20~22시)** ▶충남 서산 / 선한목자교회(최**)010-4828-3408, **5.19(10~17시)** ▶경기 김포 / 꿈꾸는교회(강**)010-4128-0448, **5.20(09~21시)** ▶경남 진영 / 진영소망교회(김**)010-4567-8775, 그 외 8교회 진행중.

5월 22일 ~ 5월 27일 ▶전남 신안 / 열방선교센터(강**)010-7364-9982, **5.22~26(11~17시)** ▶경기 군포 / 예수생명교회(권**)010-2735-4869, **5.23(10~12시)** ▶경기 수원 / 주님의교회(이**)010-5006-5529, **5.24(11~15시)** ▶경기 부천 / 어울림교회(박**)010-2664-6936, **5.24~26(10~17시)** ▶강원 속초 / 동명교회(최**)010-8378-1273, **5.25(20~22시)** ▶충남 서산 / 선한목자교회(최**)010-4828-3408, **5.26(10~17시)** ▶경기 김포 / 꿈꾸는교회(강**)010-4128-0448, **5.27(00~24시)** ▶울산 북구 / 우정교회(박**)010-8308-4628, 그 외 9교회 진행중.

5월 29일 ~ 6월 3일 **5.29~31(10~16시)** ▶서울 마포 / 금강아산병원(이**)010-5248-4147, **5.29~6.2(11~17시)** ▶경기 군포 / 예수생명교회(권**)010-2735-4869, **5.30(10~12시)** ▶경기 수원 / 주님의교회(이**)010-5006-5529, **5.31(10~17시)** ▶경기 김포 / 꿈꾸는교회(강**)010-4128-0448, **5.31(11~15시)** ▶경기 부천 / 어울림교회(박**)010-2664-6936, **6.1(20~22시)** ▶충남 서산 / 선한목자교회(최**)010-4828-3408, **6.2(14~17시)** ▶전남 순천 / 우리동네작은교회(강**)010-7129-7224, **6.2(12시)~3(12시)** ▶대구 중구 / 서현교회(권**)010-9275-7843, 그 외 5교회 진행중.

* 더 많은 정보는 기도24·365홈페이지(www.prayer24365.org)를 참고해주세요. 느헤미야52기도에 함께 하기를 원하는 분은 사전에 연락하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느헤미야52기도 문의 ☎ 010-8267-4365)

월드포커스

군부 집권 2년째 미얀마… 기독인들, 다양한 지원 활동

최근 미얀마군이 무장 저항 단체가 있던 사가잉(Sagaing) 마을을 공습해, 어린 아이를 포함해 100여 명이 사망했다. 미얀마에서 군부가 집권한 지 2년이 지난 지금 군부의 통치에 저항하는 광범위한 무장투쟁에 대응하기 위해 폭력이 증가했다. 마을 공습에서부터 시민불복종운동(CDM)의 민간인 구성원을 포함하여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사람들을 체포하고 심지어 살해하는 것까지 공격 양상은 다양하다.

미얀마의 고위 공무원인 코 묘(Ko Myo)는 가족과 함께 편안한 삶을 살고 있었다. 하지만 군부가 그와 수천 명의 시민불복종운동 참가자들을 표적 삼아 공격하기 시작하면서 그의 삶은 달라졌다. 그와 가족은 태국으로 피난을 떠나게 됐다.

그는 CBN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미얀마에서 체포되면 살해될 수 있다. 내 동료들이 정부군에게 붙잡혔다. 그들 중 일부는 살해당했고, 일부는 감옥에 갇혀 있다. 우리는 군으로부터 안전한 이곳에서 생활하지만, 이곳에는 일이 없다. 우리는 다른 기관들로부터 식량 배급에 의존하고 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걱정된다."고 했다.

그의 아내 마자르(Mazar)는 태국의 미얀마 난민 수용 거부로 인해 숨어 지내야만 하는 이 나라에서 두 아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에 대해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마자르는 "우리의 안전을 위해 집, 가족, 생계,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다.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며 눈물을 흘렸다.

기독교인인 마자르는 그녀의 상황으로 인해 불교신자인 남편이 함께 교회에 가게 된 것에 대해 감사할 이유가 생겼다고 말한다. 그녀는 또한 "여기서 내가 힘과 희망을 얻는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위험에서 구원하신다고 말하는 시편 91편을 믿는다."고 말했다.

2010년 미얀마의 총선 이후, 민주주의를 누렸던 이곳 사람들, 특히 젊은 세대들은 지금 환멸과 고통을 겪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미얀마를 탈출하여 시민방위군(PDF)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여성들처럼 총기로 군부 통치에 맞서 싸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PDF는 군부의 학대로부터 미얀마 국민의 생명과 재산, 생계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민간인들이 결성한 무장단체다.

그들 중 한 명은 "우리는 민주주의와 미래 세대를 위해 목숨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다. 내가 시위대에게 물을 주고 있었는데 군부가 나를 보고 쫓아왔다. 군대는 거리에서 군중들을 죽이고 있기 때문에 평화적 시위로 싸우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들은 우리를 죽일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장해서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자국 상황 악화로 인해 이 여성들은 자유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걸게 되었다. PDF의 또 다른 여성은 "내 꿈은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조국이 민주주의를 되찾는 것이다. 민주주의가 없으면 내 꿈은 아무 의미가 없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쟁취하면 다른 사람들도 나와 함께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다."고 했다.

유엔 인권이사회(UNHRC)에 따르면, 이 분쟁으로 인해 미얀마에 있는 16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집을 떠나야 했으며 1750만 명은 인도적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미얀마 군부는 국제

출처: 프리 버마 레인저스 홈페이지 캡처

인도주의 단체들이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지역에 구호물자를 전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프리 버마 레인저스(Free Burma Rangers)와 같은 기독교 기관들이 그 틈을 메우고 있다.

자원 봉사자들을 위한 프리 버마 레인저스 코디네이터인 제임스 곤잘레스는 "도움을 주고 싶은 기관들이 위험 지대로 갈 수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가서 그곳 환경에 도움을 주도록 부르셨다고 믿는다. 우리는 의약품과 학용품을 가져가고 훈련 받은 의료 전문가들을 데려간다."며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잃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여전히 그의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것을 그들에게 상기시키고 싶다."고 말했다.

CBN 훈련을 받은 선교사들 또한 미얀마에서 싸우고 있는 부모를 둔 어린이들에게 보호소를 제공함으로써 이 분쟁의 희생자들을 돕고 있다. 그들은 보살핌을 받는 동안 무료 교육을 받고 하나님과 그들을 향한 그분의 사랑에 대해 배운다. 인터뷰를 마친 후, 선교사들은 PDF 구성원들을 기도 모임에 처음 초대했다. 선교사들은 이 경험이 이 젊은 군인들에게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참된 평화와 자유에 대한 지속적인 기억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다. [GNPNEWS]

* 기사 전문은 QR코드 검색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신학교를 돕겠습니다"

선교지에서 '돈'은 참 묘한 존재이다. 누군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결과이지만, 그 쓰임새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누군가의 절실한 필요를 채우기도 하고 미래의 일꾼을 세우기도 한다. 선교비가 잘 사용된 경우이다.

반대로 선교비가 의존성을 높이고 그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못하게 할 수도 있다. 때로 교회 개척을 위한 지원이 오히려 교회 개척의 동력을 상실시키는 경우도 있다. 외부 선교비 지원을 받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경우이다.

오늘 만난 이위쪼 교회 지도자들이 내년부터 신학교에 매년 7000밧(약 210불)을 헌금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들의 형편을 생각하면 이는 작은 액수가 아니다. 이런 헌신이 있기까지 여러 스토리가 있다.

디뜨느 목회자는 이번에 우리 신학교의 목회자훈련 과정을 졸업했다. 그가 섬기는 이위쪼 교회는 태국에서 가장 오지라고 할 수 있는 딱(Tak)도의 타송양(Thasongyang)군 지역에 위치해 있다. 20년 전 필자가 처음 그곳을 방문할 때, 당시 도로가 없어 마지막 3시간은 걸어서 갔다. 마을 집들은 대부분 나뭇잎이나 짚 또는 너와 지붕들이었다. 마을은 화전농사를 지으며 매년 식량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던 곳이다. 그리고 내 기억 속에 거의 잊혀졌다.

디뜨느 목회자는 4년 전 신학교의 목회자훈련원에 와서 훈련을 받게 됐다. 이를 계기로 필자가 다시 그곳을 방문하게 됐다. 마을까지 길이 놓여서 차량으로 갈 수 있었으며, 집들은 모두 슬레이트나 개량된 지붕으로 변모했다. 몇 집에는 차량들도 보였다. 교회당은 나무를 이용하여 제법 규모 있게 건축하였다. 지난 20년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던 모양이다.

그러던 어느 날. 지난해 초 지방회에서 이 교회에 건축을 위한 목적헌금이 있다며, 건축할 의사가 있는지 물어왔다. 교회는 5년 전 교회 증축을 위해 미리 땅을 구입해놓았기에, 재건축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지방회는 몇 달 뒤 상황이 달라져 후원이 어려워졌다고 했다. 교인들은 많이 서운해했다. 이미 기존 교회를 철거했기에 다시 돌이킬 수도 없었다. 그리고 올 1월 26일 기공예배를 드렸고, 11월에 헌당예배를 드리기로 했다는 것이다. 어떤 사연인지 알 수 없으나, 지방회는 지난해 말 약속한 금액에 추가지원금을 보내왔다.

그의 이야기를 목회자들과 같이 들으면서 이에 대한 그들의 의견을 물었다.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당사자인 이위쪼 목회자의 의견도 물었다.

"사실 우리는 땅을 이미 구입했으며, 25만 밧 정도의 건축헌금을 준비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50만 밧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니 놓치기가 아까웠습니다." 그는 솔직한 심정을 이야기했다.

향후 계획을 논의하던 중 그 얘기를 듣던 필자가 문득 이런 의견을 제시했다. "도움을 받았으니 은혜를 갚아야 하지 않을까요? 앞으로 신학교를 위하여 매년 5000밧 이상을 후원하면 어떨까요?"

다음을 기약하고 헤어졌다. 그리고 얼마 전 다시 디뜨느 목회자와 교회 지도자들을 만났다. 그들은 내년부터 신학교를 위하여 매년 7000밧을 헌금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재 카렌 총회에 속한 237개의 조직교회 가운데 신학교를 위하여 매년 5000밧 이상을 정기적으로 헌금을 하는 교회는 두세 곳 밖에 없다. 나머지는 1200밧 정도나 쌀을 보낸다. 물론 이것도 귀하지만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외부

제공: 오영철 선교사

지원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만약 이위쪼 교회가 매년 7000밧을 정기적으로 한다면 가장 많이 하는 교회가 될 수도 있다.

이것은 두 가지 면에서 중요하다. 첫째, 도움을 받고 난 뒤 그 은혜를 외부를 위해 사용하는 좋은 예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가난한 교회이지만 총회의 일에 풍성하게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 만약 총회 소속 교회가 이위쪼 교회처럼 헌신한다면 신학교는 외부 지원을 받지 않고도 스스로 운영이 가능해진다.

선교지에서 '돈'은 많은 영향력을 갖고 있다. 때로는 물질 이상의 의미를 갖기도 한다. 돈은 방향성을 결정하는 힘이 있다. 도움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도움 후의 방향이다. 도움 받는 것이 일종의 정책이나 경향이 되어버린다면 의존성은 증가한다. 이는 헌금 목적과는 방향과 다른 경우이다.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며 지원했는데 나중에 더 의존적인 교회가 될 수 있다.

이위쪼 교회는 결과적으로 큰 헌신을 결정했다. 가난한 교회도 총회를 위하여 도울 수 있는 본이 된 것이다. 더 나아가 선교하는 교회에 참여하기를 소망한다. 어쩌면 그 소망은 이미 실현되고 있는 것 같다. 왜냐하면 지난 3월 목회자훈련원 졸업생들의 선교후원회를 조직할 때 그 교회 담임인 디뜨느 목회자도 매년 1000밧을 선교비로 작정했기 때문이다. 가난한 교회의 귀한 헌신은 또한 나의 선교방향을 돌아보게 한다. 그것은 나를 위하여서도 좋은 본이기 때문이다. [GNPNEWS]

오영철 선교사

* 기사 전문은 QR코드 검색

사람 풍경 삶의 풍경을 통해 본 하나님의 은혜

은혜의 자리에 선 **김종홍** 선교사 (우크라이나)

제공: 김종홍 선교사

• 1면에 이어

-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을 때 어떤 상황이었나요?

"작년 초 전쟁 가능성이 있다며 대사관에서 철수하라는 연락이 왔어요. 당시는 철수하지 않으면 여권이 소멸된다고 했기에 어쩔 수 없이 몰도바로 이동하게 됐어요. 현지인들은 전쟁이 나지 않는다고 했지만, 결국 전쟁은 일어났고 모든 주민들이 피난을 떠나기 시작했어요. 이분들을 도울 방법들을 찾다가 일단은 루마니아에 있는 피난처를 연결해줬어요. 그러나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분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나 고민하면서 재정을 보내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한국 전남 광주에서 고려인 마을을 섬기는 목사님을 알게 됐어요. 우리 교회 성도의 여동생이 그 교회를 나가고 있었어요. 목사님에게 우리 성도들이 국경에서 도움을 기다리고 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문의했어요. 구체적으로는 비행기표를 구해달라는 요청이었죠. 목사님은 기도하고 모금해 보겠다고 하시더군요. 얼마 후 비행기표 15개를 구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렇게 첫 그룹이 한국에 입국하게 됐어요. 그때가 작년 5월 초였어요."

"난민 900명을 한국으로 데려왔어요"

- 우크라이나 난민이 우리나라에도 들어왔군요.

"이분들이 인천 공항에 들어올 때, 매스컴을 통해서 보도가 됐어요. 우크라이나에서 온 첫 단체 입국이었으니까요. 이 소식이 우크라에나에 전해지면서, 그곳에 있는 고려인 난민들이 자신들도 한국으로 보내달라고 연락을 보내오더군요. 다시 광주 목사님과 통화를 했죠. 감사하게도 목사님이 끝까지 해보자고 하시더군요. 처음에는 우리 교인들만 데려오려고 했었는데, 추가적으로 고려인 명단을 계속 받게 됐어요. 비행기표가 구해지는 만큼 현지로 보냈어요. 작년 내내 이 일을 했어요. 표를 받고 들어온 사람들이 900여 명 정도 됩니다. 9억 원 정도 들었죠."

- 어마어마한 섬김이었네요. 한국에 도착한 난민들은 어떻게 됐나요?

"초창기에 들어온 분들은 한국에 친인척들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이분들은 주로 광주로 내려갔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광주가 포화상태가 됐죠. 또 한국에 연고가 없는 사람들도 많아지면서 제가 있는 안산에 정착을 시켜야겠다고 생각하고 교회 주변에 집을 얻어주기 시작했어요. 이것도 한 가정 때문에 시작하게 된 것이었어요."

- 한 가정이 이렇게 늘어나게 됐군요.

"할머니 한 분이 당뇨 때문에 발가락을 절단하는 일이 있었어요. 피난 중에 약을 못 구해서 몰도바 병원에서 발가락을 절단했는데, 한국으로 모시고 왔을 때 많이 아파하셨어요. 치료가 제대로 안된 상황이어서 이대로 놔뒀다가는 다리마저 잃을 것 같았죠. 자가격리하는 동안 집을 구하고 병원에 입원시켰어요. 이분들은 한국에 들어오고 6개월 동안은 의료보험 적용이 안돼요. 수술하고 나니까 비용이 1000만 원이 나왔어요.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 하나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한 단체를 연결해주셨어요. 한 교회에서 운영하는 푸른나눔이라는 단체였어요. 푸른나눔에 이분들의 상황을 나눴더니 한 가정, 한 가정을 지원해주셨어요. 그러다 푸른나눔이 전담해서 고려인 난민들의 거주, 생계를 지원해주셨어요. 그 외에 필요한 살림살이들은 각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수건이라도 모아서 챙기고, 필요한 것들은 구입해서 집을 꾸며줬어요."

- 한 인생이나 가정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섬김인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들을 이렇게 도울 수 있게 된 계기가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 몇 가정이 독일 난민이 되면서 독일이 난민 정책을 어떻게 펼치는지 보게 됐어요. 독일은 난민에게 집을 주고 생계비를 주더군요. 또 의료비도 공짜죠. 대신 8~9개월 동안 언어를 배워야 해요. 좋은 노동력이 들어왔으니 장기적인 투자를 한 셈인 거죠. 독일의 시스템이 좋아 보였어요. 우리나라는 난민에 대한 이런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나라에서 못하는 걸 내가 해보겠다는 생각으로 3개월 정착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집을 구해주고, 3개월 동안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곳에 온 사람들 모두에게 3개월 동안 한글을 배우게 했어요. 한국에 와서 일을 하고, 버스를 타고 물건을 사려고 해도 한글을 알아야 하니까요. 그렇게 언어 코스를 만들었어요."

- 좋은 구상이지만, 혼자 하기에는 역부족이었을 것 같은데요?

"구호품은 교회가 나눠주도록 교회로 전달했어요. 이 근처에 고려인 교회가 여럿 있어요. 난민들을 교회로 다 보내서 필요한 물품도 받게 하고, 영혼들 케어를 교회가 하도록 했죠. 제가 교회까지 개척해서 섬긴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어요. 난민들은 강제로 교회를 가게 된 거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3개월 정착 프로젝트를 하면서 부닥친 현실이 하나 있어요. 어른들은 그런대로 정착이 돼가고 있는데 아이들이 문제였어요."

"국가가 못하면 교회가 돕자!"

- 어떤 문제가 있는 거죠?

"유아들은 어린이집에 보내줄 수가 있었는데, 초등학생들은 아이들 관련 서류를 준비할 수 없어 학교에 들어가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나 학교와 이야기하면서 감사하게도 전쟁 상황인 것이 고려가 되면서 학교에 갈 수 있게 됐죠.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청소년들이었어요. 이 아이들은 집에서 게임하면서 집 바깥으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니까 어디 갈 수도 없고요. 이 아이들을 어떻게 집에서 나오게 할까 고민하다가 한 장소를 마련하고 아이들을 오라고 했어요. 공부하러 오라고 하면 오지 않으니까 일단 와서 놀고 먹으라고 했죠. 아이들은 반강제적으로 부모님 손에 이끌려 왔어요. 아이들을 계속 먹이고 2주에 한 번은 놀이공원이나 좋은 곳들을 찾아갔어요. 몸도 마음도 즐겁게 해주면서 한글도 가르쳐줬더니 아이들이 이곳을 아지트삼아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놀더군요. 아이들도 많이 밝아지고요."

- 난민들을 섬긴다는 것이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군요.

"청소년 중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할 나이도 있었어요. 대학을 못 갈 바에 한국에서 기술이라도 가르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곳에 온 난민 중에는 우크라이나에서 헤어샵, 네일샵, 카페 등을 하다 오신 분들이 있어요. 이곳에서 디저트 카페를 하게 되면 그 수입으로 생활도 할 수 있고 청소년들이 기술도 배워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기도하면서 경제 공동체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곳에 온 난민들은 한국 법을 잘 모르고, 어떻게 사업해야 할지 모르니까 경제 공동체를 통해 청소년들을 고용하고, 이후에 여러 가게들을 열고요. 사실 이 어머니들은 남편들이 동원령 때문에 나오지 못해 아이들만 데리고 나와 생계를 책임져야 해요. 이렇게 섬기면서 무연고, 무국적, 무적응 청소년, 한 부모 가정들 같은 취약계층들을 돕는 '무한도전 프로젝트'를 만들게 됐어요. 무모한 도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무한한 도전인 것이죠."

무국적 난민들에게 여행증명서 발급 도와줘

-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씩 난민 지원 시스템을 갖춰가게 됐군요.

"처음에는 필요에 의해 시작하게 된 일이었는데 하다 보니 지금까지 왔네요. 주님의 인도하심이죠. 독일 난민으로 갔던 할머니 성도님은 무국적자였어요. 교인들 중에는 무국적자가 몇 명 있었어요. 구소련 시절에는 구소련권 나라들을 쉽게 왕래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많은 고려인들이 우크라이나로 이주했어요. 이곳은 땅이 좋거든요. 고려인들은 농사를 매우 잘하는 민족이고요. 그런데 소련이 붕괴되면서 이분들이 우크라이나에 남게 됐고, 그때 서류 정리를 하지 못하면서 국적이 없어진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2000년도 초반까지 3000명 정도 있었기 때문에 국적 회복을 위한 일들이 진행이 됐지만 몇 백 명 정도는 국적 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이런 사람들은 여권이 없기 때문에 피난을 도울 방법이 전혀 없었죠. 기도하다가 외무부와 법무부에 이 문제를 알리고 이슈화가 되면서 고려인이라는 게 확인되면 여행증명서를 만들어주게 됐어요. 그런 방법으로 무국적자들이 한국에 들어올 수 있게 된 것이죠."

- 영화 같은 흥미진진한 스토리인데요. 뒤늦은 질문이지만 주님은 어떻게 만나게 되셨나요?

"모태신앙으로 순탄한 인생을 살았어요. 청년시절 선교사로 헌신을 하고 선교 훈련을 받고 에티오피아로 단기선교를 나갔어요. 나름 선교훈련을 받고 선교사로 헌신해서 나갔는데 어려운 일만 닥치면 정체성이 흔들렸어요. 이게 뭘까 생각했죠. 이후 2002년에 결혼을 하고 아내와 신앙 훈련을 받고 있다가 복음학교에 참석하게 됐어요. 저는 그동안 선교사로 헌신도 하고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저의 죄 앞에 직면한 건 처음이었어요. 저의 죄덩어리 모습을 보면서 고꾸라졌고 거기서 통곡하면서 주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믿게 됐어요. 이후 장기 선교 사역을 준비하다 2005년에 우즈베키스탄(우즈벡)으로 가기로 결정됐어요."

- 그렇게해서 우즈벡으로 가시게 됐군요.

"2006년도에 우즈벡으로 파송받아 선교지에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사실은 먼저는 투르크메니스탄으로 가기로 했지만, 들어갈 수 없게 되면서 우즈벡으로 가게 된 것이죠. 우즈벡으로 나갈 때는 평신도 전문인 사역자로 나갔어요. 당시 이슬람권에는 목회자 신분으로 갈 수 없는 곳이 많았고, 평신도 신분으로 갈 수 있는 곳을 찾다보니까 투르크메니스탄이 있더군요. 그렇게 선교단체를 통해 팀으로 들어가려다가 막혀서 우즈벡으로 가게 된 것이죠. 그곳에서 한국 기업과 연결해 여러 사업을 진행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추방으로 끝이 났어요. 독재국가인데다 감시가 워낙 심했어요."

- 우즈벡에서의 시간들이 궁금합니다.

"처음 구호단체로 비자를 받아 들어갔다가 6개월 만에 그곳을 떠나야 했어요. 이후 키르기스스탄으로 옮겨 언어 공부를 하고 있다가 다시 2007년에 우즈벡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이 때는 비즈니스 비자를 받아서 들어가게 됐죠. 우리 팀은 다양한 비즈니스를 했는데, 저는 1차 산업 관련 사업을 하게 됐죠.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그 사업은 마피아가 하는 일이더군요. 저는 모르고 시작했는데, 완전히 사기를 당하고 막대한 재정을 날리게 되면서 아주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GNPNEWS]

▲ 우크라이나 아둘람 사랑교회 교인들. 제공: 김종홍 선교사

Y.K.

* 기사 전문은 QR코드 검색

선교 통신

동티모르, 가톨릭 배경에도 주술사 찾아가 병 치료

동티모르공화국 사람들은 상당히 심각하고 복잡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식민주의와 전쟁, 내전, 정치, 경제(빈곤)라는 어두운 역사적 배경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다수가 가톨릭 신자인 가톨릭 국가임에도 애니미즘의 문화적 전통이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악령에 대한 믿음, 전통 영매술, 우상 숭배(바위, 산, 동물 및 특정 장소), 그리고 많은 전설과 애니미즘이 가톨릭과 혼합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플 때 지역 주술사나 다른 전통적 미신을 찾습니다. 복음주의 교회 안에도 여전히 이런 문화가 깊이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신자들이 주술사에게 치료받는 일이 흔합니다. 현지 관행을 따르기를 거부하고 가족의 반대를 이겨내려면 많은 힘이 필요합니다.

20살인 베르나는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고 부모님도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베르나가 아팠을 때 여러 번 의사에게 갔지만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의 어머니는 모든 병에는 이유가 있고 주술사는 질병의 원인을 알아낼 수 있을 거라며 주술사에게 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베르나는 전심으로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했기 때문에 가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그 일로 2개월 동안 베르나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동티모르 사람들에게 '용서'는 매우 큰 도전입니다. 아픈 역사로 인해 복수심이 아주 강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청년이 폭력 단체에 속해 있고 이 집단들은 서로 싸우고 죽입니다. 동네에서 사람이 셋이나 죽어도, 누구도 그들의 죽음에 의문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런 일은 일상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용서하지 않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복수의 마음을 깨뜨려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긍휼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길 부탁하십니다. 용서는 쉽지 않고 우리의 죄 된 본성에 어긋납니다. 그러나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우리는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이곳 신자들이 용서의 간증이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지미'

로로세(Lorosae)에서 자란 '지미'는 이웃들에게 두려운 존재입니다. 이웃들은 그를 외로움을 뜻하는 메사크(Mesak)라는 이름으로 불렀고, 지미는 정말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는 아무도 필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고 홀로 지냈습니다. 누구도 곁에 다가올 수 없게 만들었고,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자신을 쳐다보기만 해도 주저 없이 싸움을 걸었습니다. 또한 그는 불법 총기 밀매를 통해 일주일에 800~900달러를 벌어들였지만, 담배와 술, 마약으로 대부분을 탕진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사촌이 그를 교회에 초대했습니다. 지미는 그날 밤, '나는 너의 전부를 원한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느라 밤새도록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그는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며 술과 마약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였고, 몇 달 후인 2018년 세례를 받았습니다. 지미는 이전에 풍족하게 살았지만, 마음은 늘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 수입은 훨씬 적어졌음에도, 예수님과 동행하며 내적인 부요함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는 "예전에는 많은 돈을 벌었지만 늘 부족함을 느꼈는데, 이제는 훨씬 적은 돈으로 살지만 내게 필요한 것들은 모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늘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지미의 오랜 친구들과 지인들은 그를 멀리하며, 그의 변화된 삶이 단지 기독교인들로부터 더 많은 돈을 빼내기 위한 것이라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지미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가족과 친구들을 만났고, 그분을 위해 기꺼이 독신으로 살고자 합니다. [GNPNEWS]

로키 안드리아스(Rocky Andrias, 한국WEC국제선교회)

▲ 동티모르섬. 출처: Trevar Skillicorn-Chilver on Unsplash

광야에서 외치다

거대한 성벽 같은 태국을 위해 눈물로 기도해주세요

저희 가정이 태국 방콕에 머문지 20일이 더 지났습니다. 한 주에 적어도 6일은 방콕 시내 거리로 나가며 거리의 분들을 만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방콕에는 거리의 분들이 제 예상보다 훨씬 많이 있었습니다. 방콕을 동과 서로 가르는 차오프라야 강의 30여 배 선착장과 방콕 시내의 지상철 혹은 지하철역 주변 거리에서 거리의 분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만나 선물을 전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계심도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리의 프레이포유 사역 외 대부분 일상생활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어려움은 이 땅에 수백, 수천 년간 기도가 심겨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도 기도하는 사람이 별로 없으며, 태국인들을 위해 진심으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이들이 많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7000만이 넘는 국민 중 1%도 되지 않는 기독교 신자, 그 1%도 가톨릭 신자를 포함한 수치입니다. 그 외 대부분의 사람들은 힌두교 신앙을 기본 바탕으로 둔 불교와 토속신앙을 믿고 있기에 구약 성경의 가나안을 실사판으로 보는 기분입니다. 게다가 저희 가정이 머무는 숙소 주변에는 이슬람 사원이 있어 매일 저녁 경전 소리를 대형 스피커로 듣고 있습니다. 지금 가나안 전쟁을 꼭 치러야 한다면 각자 믿는 신을 향한 기도 전쟁을 한 번 하고 싶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 탐마삿 대학교 앞에서 만난 형제님(우측). 제공: 손은식

태국인들은 이방 종교가 생활 전반에 깊이 배어있는 것 같습니다. 동네 어귀, 거리 곳곳에 세워진 힌두교와 불교 신상에 헌화하고 돈을 바치며 기도하는 태국인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태국의 가장 큰 종교이자 살아있는 신은 두말할 필요 없이 국왕입니다. 태국=불교=왕이라는 이념(?)이 지금도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1782년에 현재의 국가 틀을 세우고 지금까지 이어진 짜끄리 왕조가 새 왕국의 국교로 불교를 가져온 것은 탁월한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불교는 기본적으로 현재의 주어진 환경과 상황에 만족하며 서로 경쟁하지 않고 스스로 깨달음을 얻기 위해 수련을 거듭해야 하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태국은 1년 365일 무더운 열대 기후이기에 스스로 깨달음을 얻기 위한 수련은 불가능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비어있는 수련의 영역 혹은 영적인 성찰의 자리에 불교의 부처와 힌두교의 각종 신들을 가져와 자기가 섬길 신을 선택하게 만들고 불교와 힌두교의 영향 아래 대부분 인구를 차지하는 저소득층 앞에 서 있는 거대한 성벽을 바라보면 우리가 가진 능력이 한없이 작게 느껴지지만 그 성벽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는 곧 힘을 얻게 됩니다.

저희 가정이 태국에 온 목적은 거리의 가난한 분을 만나고 그분들과 함께 기도하기 위함이요, 그분들 옆에 계시고 그곳에 함께 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입니다. 뭔가 원대한 목적으로 태국을 변화시키기 위해 온 것이 아니고 제게는 그럴 능력도 없기에 저희 가정은 오늘도 우리 앞에 놓인 주어진 길을 감사함으로 걸어갑니다. 더하여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더 느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방콕 거리에서 드리는 기도를 받아주시고, 태국의 가난한 이들, 죽어가는 이들, 소외된 이들 곁에 계신 분이 참 신이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고, 거리로 나와 교제하고 기도할 때 태국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만나게 하옵소서."

[GNPNEWS]

손은식

* 기사 전문은 QR코드 검색

복음의 능력

기도 없는 인생, 후회하는 인생

오늘날, 믿음이 있다고 고백하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중요시하지 않는다. 이성주의적(理性主義的) 분위기가 교회에 침투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 활동에 너무 바쁜 나머지 기도에 힘쓰지 못한다. 이에 그들에게는 기도가 영광스러운 특권이나 주도적인 힘이 되지 못한다. 우리는 기도의 필요성과 힘을 부정하는 교묘한 논리를 만들어냈다. 그 대신에 별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활동에 끊임없이 몰두한다. 많은 사역들이 피상적인 결과만을 낳고 죽어버린 것은 모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도는 모든 것의 기초가 되어야 하고, 항상 더욱 늘어나야 한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 중 한 사람이 임종 때에 "기도를 조금밖에 못한 것이 후회스럽습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것은 사역자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슬픈 후회의 탄식이다. [GNPNEWS]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E.M.바운즈)'에서 발췌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교회 (11)

교회는 십자가의 사랑이면 충분하다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을 꽉 짜면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이 중심에 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롬 5:8) 천지가 뒤집어져도 바꿀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다.

고멜처럼 음란한 창녀가 되어 주님 가슴에 못을 박고 떠나가던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사랑을 결정하셨다. 우리의 반역으로 주님을 발가벗기고 멸시해 죽이던 그때, 주님은 우리를 위해 당신의 아들을 대신 죽이셔서 구원하셨다. 그보다 더한 사랑의 확증과 아름다움이 어디 있겠는가?

이것이 기독교의 사랑이다. 거친 십자가의 복음은 역사와 존재를 다 동원해도 표현이 불가능하다. 하나님을 평생 묵상하다가 눈이 상할 정도로 울 만큼 어마어마한 것이 십자가 복음이다. 이 복음이 왜 우리를 못 바꾸겠는가. 복음에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다. 복음에 제대로 부딪혔다면 아무 일도 없을 수 없다.

죽은 믿음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이다. 한국교회, 복음으로 새롭게 될 수 있다. 복음을 생명으로 만나면 반드시 거듭남이 일어난다. 복음은 삶을 온전히 헌신하게 하고, 나의 주인과 사랑의 대상을 바꾼다. 그리고 진리의 사람으로 변화시킨다. 복음의 능력은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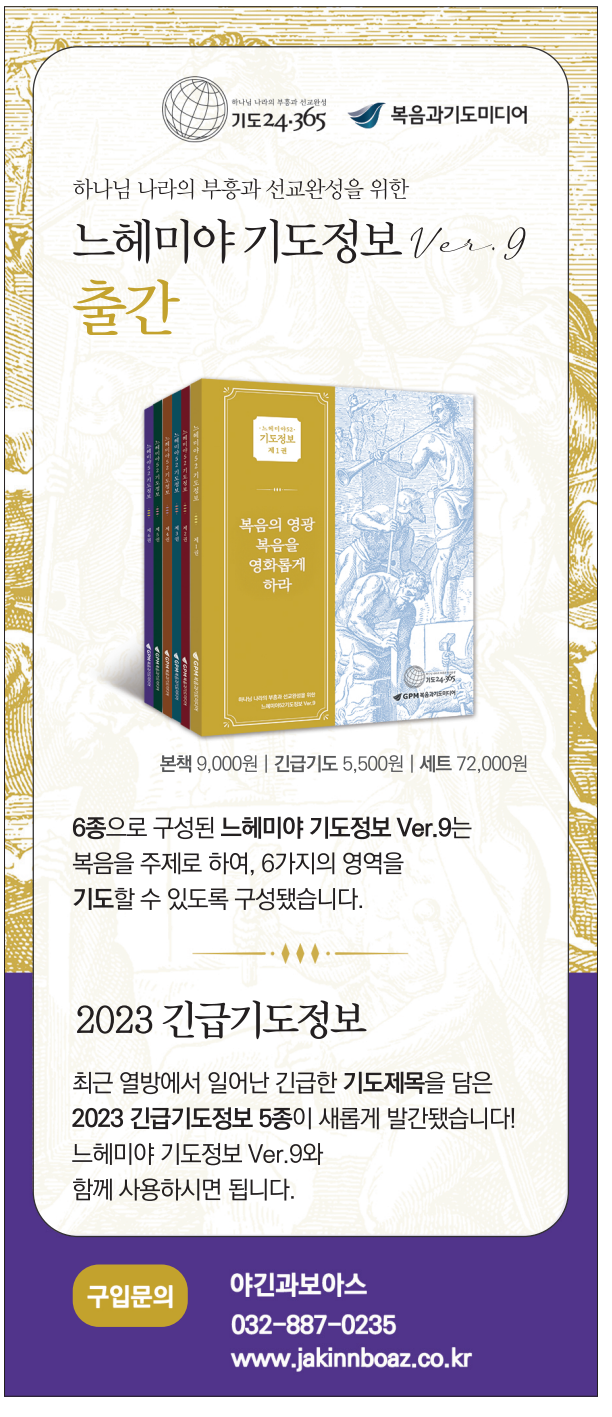
이제는 복음을 복음답게 삶의 중심에 놓고 전(全) 생명과 존재를 걸어 복음 앞에 섰던 그날처럼 날마다 그 농도로 살아가야 한다. 지금이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랑하는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사는 것이 영원히 사는 비밀이다. 영생을 누리며 오늘 이 순간을 사는 것이다. 가장 행복해야 될 날은 지금이다. 주님 앞에 가장 최고의 것을 드리는 날은 다른 어떤 날이 아니라 지금이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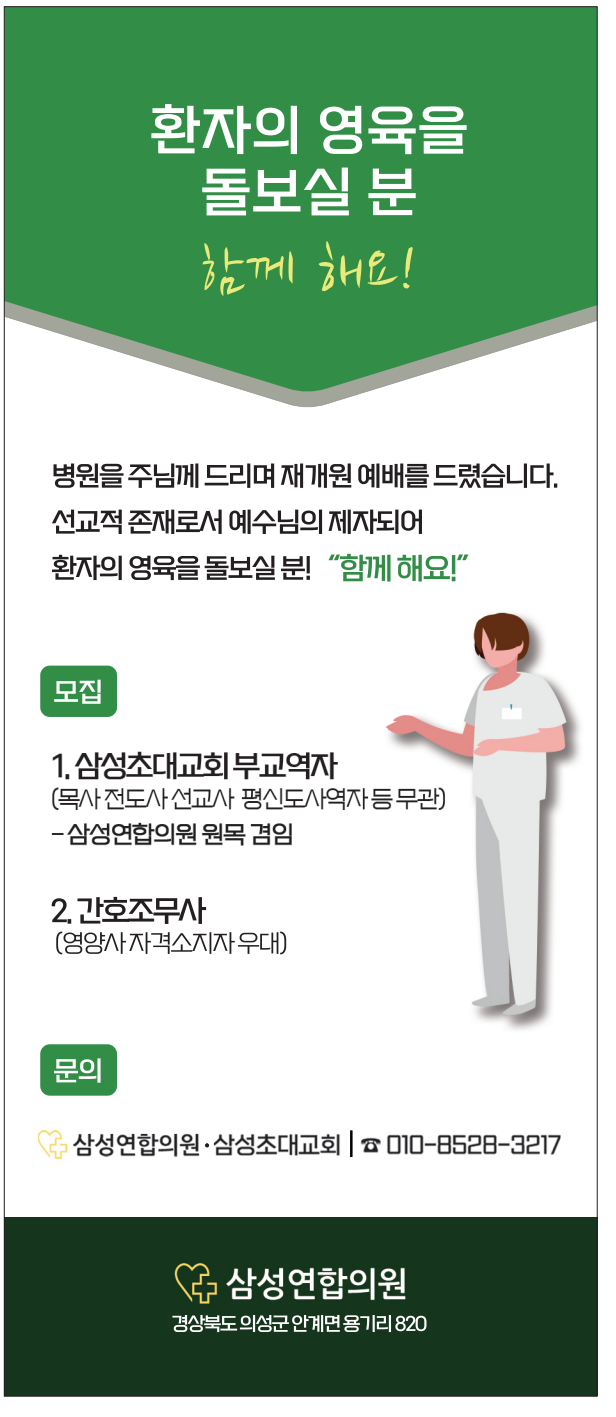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사랑하라

교회가 새롭게 되는 길은 멀리 있지 않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면 충분하다. 교회의 변화와 천지개벽보다 어려운 나의 중심을 바꾸는 능력과 지혜는 십자가 복음밖에 없다. 다른 일에 자꾸만 초점을 흐리거나 피하지 말고 정직하게 정면으로 부딪혀서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나에게 실제가 되도록 주님과 맞닥뜨려야 한다. 주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될 때까지 복음에 직면하고 이미 되었다면 이 농도 이하로 우리를 사로잡는 어떤 것도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 예수와 함께 죽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믿음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기적과 영광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2018년 7월) 〈끝〉 [GNPNEWS]

일러스트=이예원

김용의 선교사
(순회선교사. LOG미션 대표)





믿음의 삶

내가 옳다 여기던 가치관을 하나하나 허무셨다

나는 어릴 적부터 예수님을 믿고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자랐다. 그래서 항상 바르게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는 생각에 바리새인과 같이 살았다. 그래서인지 매년 돌아오는 사순절마다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고 마음에 와닿지 않았다. '나보다 더 큰 죄인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지.'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해도 마음은 누구보다 완악했다. 그런 내가 어느 날 복음학교에 참석하게 됐다. 그곳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나의 병든 자아와 자기 사랑의 실체를 보게 하셨다. 그때야 비로소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

주님을 만나고 믿음의 걸음을 걷는다고 해도, 옛 습관대로 돌아가려는 병든 자아와 죽기까지 싸워야 했다. 그리고 자기 사랑에 빠져 인정과 평판에 목마른 나와 싸워야 했다.

복음학교를 다녀온 후 삶은 광야와 같았다. 서울로

일러스트=고은선

이사를 와 가족도 없고, 마음 나눌 지체나 공동체도 없었다. 심지어 대형교회를 섬겼던 내가 이제는 이름도 빛도 없는 작은 외국인 교회를 섬겨야 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지만 자기 연민에 빠지는 날이면 한없이 공허하고 우울해졌다.

그때 주님은 중보기도학교와 선교관학교, 말씀기도모임을 통해 십자가 복음을 다시 듣게 하시며 말씀과 기도의 훈련을 하게 하셨다. 지금까지 가장 믿음을 많이 쓰고 있는 영역은 다른 어떤 것보다 매일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기쁨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다. 내가 지금까지 옳다 여겨왔던 가치관을 하나하나 무너지게 하셨고 나의 열심도 아무 소용없음을 철저히 깨닫게 하셨다.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졌던 것처럼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성전에 거하시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의 마음에 계신다는 것을 알게 해 주셨다. 나의 열심과 연민에 빠져 있던 내게 주님은 언제나 주님이면 충분함을 말씀과 기도로 때마다 깨닫게 하셨다.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열심과 특심이 아니라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임을 광야와 같은 서울살이에서 배우게 하셨다. 주님은 내가 다른 어떠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만 100% 신뢰하며 의지하길 바라며 훈련하셨다. 그중 몽골교회의 사역은 주님만 온전히 신뢰하는 시간이었다. 나 빼고 99%가 몽골인인 교회에서는 기본적인 회화 말고는 언어가 되지 않았다. 내 열심과 특심이 전혀 필요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주님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몸소 배우게 해주셨다.

나는 이제 믿음의 걸음도 내 열심과 나의 어떠함으로도 할 수 없는 그저 죄인임을 고백한다. 그러기에 나는 정말 주님이 필요하다. 나의 완전한 소망되신 주님이 때로는 병든 자아와 자기 사랑에 빠져 넘어질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리라는 것을 믿는다. 이제는 임마누엘하신 주님과 함께 담대히 믿음의 걸음을 걸을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린다. [GNPNEWS]

이초희

복음의 소리 1670-3160

워크숍 지상중계

이 코너는 GPM(복음과기도미디어)이 운영하는 복음의 소리 316 전화(1670-3160)가 진행한 '신앙 상담 시에 알아 두면 도움이 되는 정신의학' 주제로 열린 상담자 세미나(강사 권서영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편집자〉

영적 체험과 정신병을 분별해야

+ 신앙 상담 시 도움이 되는 정신의학 (13)

환시는 실제로는 눈 앞에 없는 것을 보는 증상이다. 정신과 병동에 입원한 교인들 중에 "예수님을 보았다." "마리아를 보았다."는 사람들이 꽤 있다. 그런데 병이 치료되면 이런 증상들이 모두 사라지는 경우가 많다. 특히 교인들의 환각 증상은 성경에 나타나는 환상 경험과 유사한 측면이 많기 때문에 신비스러운 영적 체험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영적 체험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역사하시는 현상이고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에 동의하지만, 현실에서는 영적 현상이 아니라 정신의학적인 문제인 경우가 우리 생각보다 많다는 것은 유념해야 할 부분이다.

망상과 환각이 같이 있는 한 환자의 사례를 살펴보자. 20대 후반의 한 남성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고백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큰 일을 맡겨주실 것이라고 믿게 됐으며, 이제 선교를 하겠다며 종일 기도하고 선교 계획을 구상한다. 문제는 선교에 대해 아무런 지식도 없고 준비를 하지 않았는데 그냥 무작정 혼자 할 수 있다고 한다. 이 남성의 집 벽 전체와 책상에 선교 계획에 대한 글이 쓰여져 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이를 읽었을 때 무슨 말인지 도저히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

우리는 영적 체험이라 여기는 것에 대해 분별할 때 전체적인 것을 봐야 한다.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님의 강력한 계시에 의해서 선교를 하려고 한다면 그에게 건강한 영적인 재생산이 일어나고, 공동체 안에서 연합하고 교제하며 사랑하는 모습이 드러날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 정신의학적 문제라면 외부와 고립되고 단절되어 자신만의 신념에 빠져 생각과 말, 행동이 옆에서 보았을 때 이해할 수 없게 되거나 생활 전반적인 기능이 저하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쉽게 일부의 경험만을 듣고 이를 토대로 영적인 현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전반적인 것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계속〉 [GNPNEWS]

부흥을 위하여

北, 다자녀 가정에 파격적 혜택… 저출산 위기 방증

한반도의 복음통일과 부흥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고통받는 이웃, 북한 주민에 대한 다양한 이슈나 사건, 이야기를 읽고 이 땅을 위해 기도를 요청한다. 〈편집자〉

북한이 최근 다자녀 가정에 파격적인 혜택을 제시한 데 대해, 이는 저출산 위기의 방증이라고 최근 자유아시아방송이 전했다.

북한은 최근 한 선전매체에서 '다자녀 세대들에 베풀어지는 혜택'에 대해 홍보했다. 북한은 다산모 치료권, 다자녀 여성 휴직권, 특별 보조금, 다자녀 세대증 발급 등을 포함해 식량과 주택 등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도 오래전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0년 평양 출판사에서 출간한 '공화국의 인민적 시책 문답'에 따르면, 세 쌍둥이로 가정했을 때 임산부로 확진이 되면 평양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으며 아이들의 몸무게가 4kg이 될 때까지 산원에서 맡아 키워준다. 거기서 세 쌍둥이 등 다자녀 가정의 아이들도 맡아 키워주며 담당 보육원이 있고, 매일 고기와 채소, 당과류 등을 아이들에게 공급하며 만 4살이 되면 부모 곁으로 간다. 또한 좋은 집에 생활필수품을 제공하고 집에 돌아가서도 아이들의 보육은 해당 지역 진료소의 담당 의사들과 탁아소의 보육원이 맡아서 해주기도 한다. 이와 더불어 산모의 산전, 산후 휴가 기간이 보장되며 북한의 모든 여성에게 산전 60일, 산후 180일로 총 240일의 휴가가 주어진다. 산후 휴가 기간에도 기본 생활비의 100%에 해당하는 산전, 산후 보조금을 받는데 이 세 쌍둥이를 임신해서 해산한 여성들에게는 좀 더 특별한 특전이 있다. 아이들이 태어나면 옷과 이불, 유제품 등을 무상으로 지급하고 어린이 세 명 이상을 가진 여성 노동자에게는 노동시간이 8시간에서 6시간으로 줄어든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들은 현실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통일의료원연구센터 안경수 센터장은 "이런 내용은 과거부터 있었던 혜택"이라며 "이렇게 매체에 반복시켜서 노출하는 것 자체가 아이를 더 낳으라는 것이다. 정책결정자들이 저출산의 심각한 위기를 인식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GNPNEWS]

北, 교묘한 수법으로 국경지역서 탈북민 유인·납치

북한 당국이 교묘한 수법으로 국경지역서 탈북민들을 유인, 납치해 처벌하고 있다고 최근 데일리NK가 전했다. 2021년 초 북한 국가보위성은 탈북 브로커로 활동하는 중국 내 탈북민을 붙잡아 탈북 루트를 차단해버릴 것을 지시했다. 이에 당국자들은 카이소 앱을 활용해 탈북민들 속으로 잠입해 교묘한 수법으로 늦은 밤 압록강에서 탈북 브로커 김 씨를 유인·납치하고 김 씨에게 총살형을 선고했다. 김 씨는 이 사업의 첫 희생자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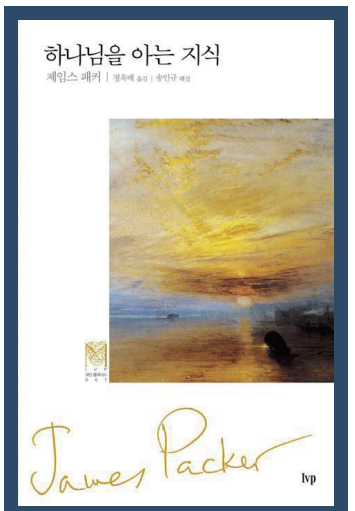
지난 2010년 탈북한 여성 김모 씨는 수년간 중국에 살면서 북한에 있는 주민들을 꺼내오는 '탈북 브로커' 일을 해오다가 지난 2021년 중국의 '카이소' 앱을 통해 탈북민으로 추정되는 대상에게서 연락을 받고 약속 장소인 창바이현(長白) 국경 지역에서 납치되어 결국 북한에서 총살당했다.

김 씨의 도움으로 가족을 찾은 탈북민들은 김 씨가 생전에 했던 발언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탈북하는 사람들을 받으러 압록강에 나가면 중국 쪽은 군대도 안 보이고 지뢰도 없다. 중국에서 북한으로 넘어가는 사람은 더욱 없다. 북한처럼 국경 연선에 군대 초소가 줄지어 늘어서 지뢰를 심어놓는 나라는 없을 것이다. 중국의 한 개 성(城)만 한 작은 북한은 국경에 아무도 없어도 도망치고 싶지 않은 그런 나라가 될 수 없을까?" [GNPNEWS]

뷰즈 인 북스 Views in Books

제임스 패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구경꾼인가? 여행자인가?



제임스 패커 지음 | 정옥배 옮김 | IVP | 504p | 2008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서문은 여행자와 구경꾼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된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아는 일에 발코니에 앉아 그저 구경만 하는 구경꾼이라고 가정해보면 어떤가. 아마도 이런 이야기가 될 것 같다. 평생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다녔고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내용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설명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분과 어떤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물어본다면 그저 대의적인 하나님에 대한 지식 외에 할 말이 별로 없는 사람이다.

그에 반해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대해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묻는다면 사람들에게 잘 정리된 언어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 길을 떠났고, 그 여정 가운데 그분을 경험하여 안 시간 동안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하여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잠 1:7)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 잠언 말씀을 잘 알고 있다. 아마 이 구절이 좋아서 암송하는 성도들도 적지 않을 것 같다.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현실사회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식의 근본이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대다수일까 아니면 소수일까 질문하고 싶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실 서로 독립적인 말이 아니다. 알지 못하는 대상을 경외하는 일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경외함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신가? 질문해 볼 수 있겠다. 저자는 다양한 측면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풍성하게 내놓는다. 신구약의 여러 성경 본문들을 인용하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세 위격이 어떻게 연합 가운데에서 충돌함 없이 삼위일체를 이루는지 유명한 신학자들의 의견과 자신의 견해를 더하여 그분의 성품과 능력을 자세히 풀어 설명한다.

그런데 필자의 세세한 설명을 읽으며 더욱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이런 설명이 필요치 않으신 분이라는 사실이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존재 여부를 누군가에게 증명하실 필요가 없다. 만물이 소리쳐 하나님이 계심을 알리고 인간의 양심을 정직하게만 들여다봐도 그분의 이름이 하나님이라는 것만 모를 뿐, 누군가 위대한 창조주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도록 디자인해 두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경외받기 합당하신 분

놀라운 일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을 끊임없이 반역하고 대적하는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서 세상 사람들이 그분의 실존을 믿지 못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놀라운 일은 사람들은 보이는 성부 하나님이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믿지 못했다. 믿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도록 로마 법정에 내주었다.

죄인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마음이 없다. 그래서 죄인이었던 우리는 지혜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 되심을 알 수 있는 지혜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로마 법정에 내주었던 그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죄인이었던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다시 여행자 이야기로 돌아가자. 발코니에 앉아 있는 구경꾼의 삶을 살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는 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소유할 수 없다. 우리는 반드시 배낭을 메고 길을 나선 여행자여야 한다. 주님이 우리에게 지게 하신 자신의 십자가의 배낭을 메고 각자의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인생이 되는 것이다. [GNPNEWS]

최현정 선교사

지면으로 보는 인터넷 복음기도신문

"갈 준비 되셨습니까?" OM 창립자 조지 버워를 추모하며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늘 천국 갈 준비가 되었냐고 질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지난달 14일 향년 84세를 일기로 소천한 오엠국제선교회(Operation Mobilization, OM)의 창립자인 조지 버워(George Verwer) 선교사의 삶을 크리스채너티투데이가 최근 추모하며 소개했다.

18세의 조지 버워는 테네시주 메리빌에 있는 기숙사 방에서 친구와 기도를 마쳤을 때, 친구에게 질문했다. "갈 준비가 됐나?" 데일 로톤은 깜짝 놀랐다. 조지 버워는 소유한 것을 팔아 그해 여름에 트럭을 사서 스페인어로 번역된 요한복음을 싣고 멕시코로 향했다. 그곳 사람들의 70%가 성경을 접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로톤은 "조지 버워의 인생에서 그를 사로잡은 열정 중 하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랜 친구가 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이었다."고 했다.

버워는 1938년 7월 3일 엘레노어 캐델 베르베르와 전기 기술자로 일했던 네덜란드 이민자 조지 버워 사이에서 태어났다. 버워의 가족은 미국 개혁 교회 회중에 속해 있었지만 조지 버워는 거의 참석하지 않았다. 젊은이들에게 교회는 그저 사교클럽처럼 보였다. 그

▲ OM 창립자 조지 버워. 출처: om.org/kr 캡처

의 소식을 들은 도로시아 클랩이라는 기독 여성은 버워가 예수에 대한 믿음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하기 시작했다. 클랩은 또한 버워에게 요한복음을 우편으로 보냈다.

이후 버워는 친구들과 함께 1955년 3월 5일에 열린 빌리 그래함 집회에 참석했다.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께 맡기라는 초대에 버워는 강단 앞으로 나갔다. 그는 "나는 하나님이 내 기질을 억누르거나 나의 비참한 모습을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사랑하시고 성령을 통해 일하셔서 나를 쓰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했다. 뉴저지로 돌아온 그는 즉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다녔으며, 자신이 다니는 고등학교에서 요한복음 1000권을 배포하고 복음 십자군을 조직했다.

몇 년 후 대학에서 버워는 자신의 물건을 팔아 멕시코 선교 여행 자금을 조달했다. 더 많은 공부의 필요성을 느낀 그는 시카고에 있는 무디신학대학교로 옮겼다. 그곳에서 그는 선교 사역을 완전히 포기할 생각을 했으나, 복음주의 목사인 오스왈드 J. 스미스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고 그리스도께 온전히 헌신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1960년 아내 드레나 크네히트를 만나 결혼했다. 이들 부부는 신혼여행을 멕시코 선교 여행으로 떠날 정도로 복음에 헌신적이었다.

버워는 그리스도에 대한 급진적인 헌신과 단기 선교의 개념을 결합하여 봉사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고 사람들이 쉽게 시작할 수 있도록 했다. 그는 비록 그들이 수년간의 헌신을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거나 신학을 하지 않았거나, 그들의 삶을 엉망으로 만들었더라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순종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실 것이라고 믿었다. 잘 정리된 이론과 방법을 가진 선교 전문가에 대해 비판적이었던 버워는 결국 그의 접근 방식을 '메시올로지'라고 불렀다.

1970년에 OM은 배를 구입했다. 배를 타고 전 세계 항구로 항해하여 기독교 서적을 나누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전파하기 위해서였다. OM은 우마낙(Umanak)이라는 이름의 네덜란드 선박을 구입해 로고스(Logos)라는 이름을 다시 붙였다. 이 배는 23만 해리를 항해하여 250개의 다른 항구로 이동, 650만 명의 사람들을 섬겼다.

버워는 2003년 OM의 국제 이사직에서 물러나 피터 메이든(Peter Maiden)에게 리더십을 넘겼다. [GNPNEWS]

* 기사 전문은 QR코드 검색

구독신청 안내

구독부수는 최소 1명 이상에게 복음을 나누며 전하도록 2부, 20부, 100부 이상 신청받고 있습니다. 구독료는 받지 않습니다.

후원 안내

복음기도신문은 동역자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제작·배포되고 있습니다. 동역하실 분들은 아래 후원계좌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국민은행 : 651001-01-343666
예금주 : 복음과기도미디어

후원자 명단

2023. 4. 11 ~ 5. 5 (가나다 순)

개인

강성민 권태선 권혜령 김광희 김샛별 김선례 김선희 김애심 김영순 김원숙 김혜신 노미자 박경희 박성규 박신희 박애리 안민자 안수경 오세주 우 석 유영권 이보희 이영미 이영선 이영옥 이은주 이장원 이종훈 이주선 이진희 정금자 정옥영 정요한 정호진 조명숙 조형광 존/정희 차인순 최점옥 황일문 무명

교회 및 단체

강서침례교회 나죽고예수사는교회 목자교회 반석중앙교회 복음가득한교회 빛과함께하는교회 산곡교회 새순교회 시흥교회 신한테크 안양그루터기교회 열매교회 오예그교회 주나임교회 주만교회 주하나교회 참좋았더라교회

"동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기사 제보·구독·헌금·동역 문의는 아래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070-5014-0406~8
E-mail: gnpnews@gnmedia.org
(31952) 충남 서산시 운산면 원평3길 8
페이스북 www.facebook.com/gospelprayernews

발행인 겸 편집인:김강호, 인쇄인:장용호[(주)아이피디]. 2010년 12월 1일 등록번호 충남, 다01355.(격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